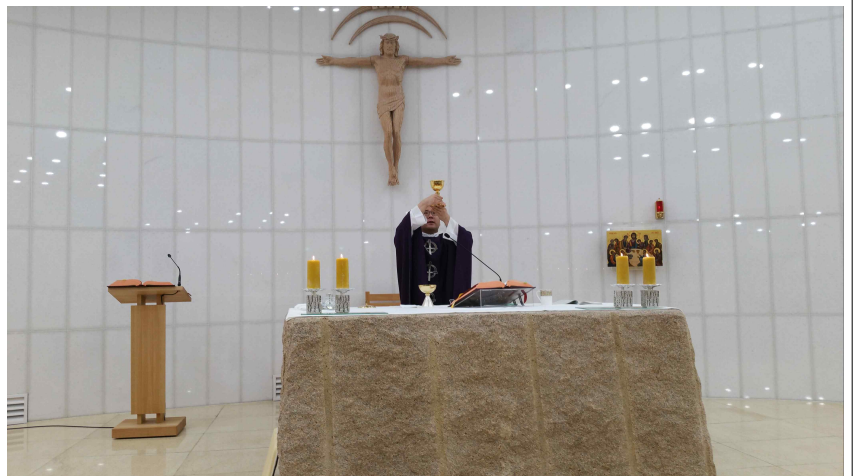


많은 율법을 완성시킨 사랑과 희생의 하느님의 법



복음 강론에서 ‘저의 친정 성당 옛 성전에서 봉헌한 사제 수품 첫 미사 이후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제대를 보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돌 제대를 비롯하여 강론대와 독서대가 낮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러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약>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3월 27일(수) 10시 본당 신자 146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흥년(다니엘) 신부님 집전으로 평일 미사를 바쳤다. 사순 제3주간 수요일 평일 미사이지만 화곡2동 성당 보좌 김흥년 다니엘 신부님은 본당 출신이고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부활 판공성사를 받으려는 많은 교우가 참석한 것이다.

이날 서울대교구 사제 연례 연수에 참여하신 주임신부님 부재로 사순 제3주간 수요일 평일 미사를 집전하신 김흥년 다니엘 신부님은

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태오 복음 중에 인간들이 지켜야 할 구약시대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우리가 한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고통을 풀어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율법에 이웃에게 사랑과 희생이란 메시아를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편하고 더 자유스러운 것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이웃에 대한 희생을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란 강론과 성찬을 봉헌하신 후 축복으로 평일 미사를 마쳤다. 이어서 신부님께서는 ‘친정이란 곳에 와서 교우들과 정담을 나누어야 하는데 화곡2동 본당에서 11시에 회의가 있어 급하게 가야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종종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다.

